



박근혜 정부의 노동시장 구조개악안 들여다보기①

“해고는 쉽게 임금은 낮게 비정규직은 더 많이”

박근혜 정부는 작년 연말 ‘노동시장 구조개혁(저들의 표현이다)’ 을 들고 나왔다. 비정규직 종합대책안 또한 여기에 포함된다. 핵심은 세 가지다. 첫째는 해고를 보다 자유롭게 하겠다는 것이고 둘째는 직무, 능력, 성과중심으로 임금체계를 바꾸겠다는 것. 셋째는 비정규직의 사용 기간과 폭을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종합대책에서 “근로계약 해지의 기준절차” 를 명확히 하겠다며 구체적으로는 객관적이고 합리적 기준에 의한 평가와 교정기회의 부여 해고회피 노력 등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구구한 설명을 제외하면, 기업에게 자체적 성과 평가를 통해 노동자에 대한 해고를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겠다는 뜻이다.

최근 천안시립예술단지부 소속의 조합원 3명이 1월 31일자로 해고를 통보받았다. 해고의 근거는 평정이라는 자체 평가제도다. 지금까지는 많은 경우, 이런 식의 해고는 부당해고 판정을 받아왔다. 정부의 이번 안은 이런 식의 해고를 정당화할 수 있는 근

거를 마련하겠다는 뜻이다. 이런 식의 해고가 정당화된다면 자본은 노동자들을 통제할 수 있는 강력한 수단을 확보할 수 있고 그만큼 노동자들의 고통은 강화될 수밖에 없다.

임금체계 개편의 방향 또한 일반해고 가이드라인의 그것과 같다. 연공중심의 임금을 성과중심으로 바꾸겠다는 것이다. 성과 평가는 노동자 내부의 분열을 가속화 시킬 뿐이다. 기업은 성과평가의 주도권을 활용해 노동통제를 강화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통제력을 기반으로 전체 노동자의 임금 총액은 낮추는 방향으로 임금체계가 설계될 것이다.

정규직에 대한 공격이 위와 같다고 해서 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전향적인 안이 있는 것도 아니다. 오히려

기간제 노동자에 대한 사용기간은 현행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고, 55세 이상이라는 단서를 달고 있긴 하지만 파견 업종을 확대하겠다고 나서고 있다.

이렇듯 이번 정부안은 노동자에 대한

해고는 자유롭게 하고 임금은 낮추면서도 비정규직은 확산하겠다는 안이다. 그러면서도 정부는 뻔뻔스럽게도 ‘근로자간 격차를 줄이고, 정규직 채용문화를 확산하고 고용안정성을 높이는 안’ 이라고 떠들고 있다. 그러면서 3월말까지 노사정 합의시한을 못 박음으로서 이 안을 밀어붙이겠다는 뜻을 분명히 하고 있다.

정부와 자본은 벌써부터 여론을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조성하기 위해 애를 쓰고 있다. 한편으로는 노동시장 이중구조와 정규직 과보호론을 들고 나오고 다른 한편으로는 고용을 둘러싼 세대 갈등을 조장하고 있다.

예를 들면 정규직에 대한 임금과 고용의 과보호가 줄어들어야 기업이 투자할 수 있고 투자가 늘어나야 고용과 임금이 확대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올해 신규채용이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으면서 그 원인으로 통상임금, 노동시간 단축, 정년 연장 등의 이유가 그 원인이라는 식의 분석이 그런 것들이다.

그러나 이러한 정부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최저임금 인상에 나선 미국이나 일본의 예를 들 필요도 없다.

천정부지로 쌓이고 있는 대기업의 사내유보금과 수년간 0%대에 머물고 있는 노동자들의 실질임금 상승률을 비교해보아도 말이 안 되는 주장이다.

민주노총은 이미 4월 총파업을 선언했다. 이번 파업은 우리 자신의 임금과 고용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한발 더 나가 성과는 독점하고 위기는 약자들에게 전가시키는 파렴치한 재벌중심, 자본중심 시스템에 대한

도전이 되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안으로는 현장을 조직하고 밖으로는 시민과 일반 노동자들을 설득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 할 것이다. 우리부터 한발 더 뛰자

2015년 비정규직 투쟁 어떻게 할 것인가? 충남토론회

지난 1월 21일 충남본부 주관으로 박근혜 정부의 비정규직 종합대책의 내용과 의미가 무엇이고 어떻게 투쟁해야 하는지에 대해 토론회를 진행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충남지역 간접고용-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중심으로 약 40여명의 동지들이 함께 했다. 토론회는 1부 사업장 현황 소개 및 인사(LG유플러스, 티브로드, 현대자동차사내하청, 동희오토사내하청, 현대제철비정규직, 삼성전자서비스, 학교비정규직, 충남지역노조의 지자체 비정규직, 다스, 현대제철, 유성기업)와 2부 비정규직 종합대책의 내용, 비정규직 투쟁 전망'에 대한 발제와 토론으로 진행됐다.

본격적인 토론에서는 '비정규직 종합대책이 하고자 하는 것은 비정규직을 확대하는 것을 뛰어넘어 '정규직 과보호' 이데올로기를 통해 정규직에 대해 일반해고와 임금체계를 개편(직무성과급제)하겠다는 것임을 주요하게 토론하고 공유했다. 또 LG유플러스 서산지회, 삼성전자서비스지회, 그리고 충남문화예술지부의 투쟁에 대해서 다양한 방식으로 함께 연대하는 것을 결의하기도 했다.

고교평준화 실시 촉구 충남도민 결의대회

지난 27일(화) 차가운 날씨에도 300여명이 넘는 충남도민들이 고교평준화 조례 개정을 거부하고 있는 충남도의회를 규탄하기 위해서 충남도청으로 모였다.



충남도의회는 지난해 10월 충남도의회 교육위원회를 통과해 본회의에 상정된 고교평준화 조례 개정안을 부결시켰다. 천안시 고교평준화 안은 이미 2013년 12월 천안시민 29,96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찬성을 73.8%로 압도적인 찬성여론이 확인된 정책이었다. 이렇게 시민들의 직접적인 의사가 확인되었음에도 새누리당 소속의 도의원들은 조례개정에 반대했다. 정치적 계산이 작용한 결과였다. 10여 년간 고교평준화 운동을 해온 천안시민들은 분노했다. 주민의 직접적 의견을 대의기관에 불과한 의원들이 막고 나섰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충남고교평준화운동본부 등은 인내하며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이번 회기에라도 개정안을 통과시켜 줄 것을 호소하고 있다.

안산~팽목항 도보행진단 충남 곳곳 행진



세월호의 온전한 선체 인양과 실종자 수습을 촉구하며 지난 26일 안산을 출발한 도보행진단이 천안(29일), 세종(30일), 논산(2월2일)에서 도보행진을 이어갔다. 도보행진에는 각 지역대책위뿐만 아니라 일반시민들까지 자발적으로 행진에 함께 했으며 아낌없는 지원과 지지를 보여주었다.

도보행진단은 19박 20일의 일정으로 하루 약 25km를 걷는 방식으로 진행하며, 2월 14일 진도 팽목항에 도착한다. 지금까지 그 어떤 것 하나 해결되지 못하고 있는 세월호 참사, 아직 끝나지 않았음을 다시 한 번 확인할 때이다.

충남문화예술단지부

천안시청, 평정 미달로 조합원 3명 해고

천안시청에 올려퍼진 외침 “해고는 살인이다! 천안시청 규탄한다!”



지난 12월 말 천안시는 천안시립예술단 조합원 3명(교향악단 2명, 무용단 1명)에 대하여 평정미달을 이유로 재위촉을 거부, 사실상 해고했다. 해고된 동지들은 10대 1의 경쟁률을 뚫고 입사한 새내기 단원이다.

충남문화예술단은 1년에 2회 평정(오디션)을 실시한다. 전체 점수에서 수시평정은 70%를 정시평정은 30%의 비율을 차지한다. 문제는 이와 같은 평정이 공정하고 객관적이었는가이다. 평가 당사자인 교향악단의 현 지휘자는 단원들에게 폭언과 협박을 일삼았고 결국 지난해 천안시로부터 징계를 받기도 했다. 무용단의 경우도 다르지 않다. 무용단의 전 안무자는 조합원들의 거센 반발과 안무자로서의 자질 미달로 해촉되어 새로운 안무자가 임용된 상황으로, 안무자가 조합원에 대한 통제와

탄압이 계속 있어왔다. 조합원들이 자신의 평정 점수가 공정하고 객관적이었는지 의구심을 갖고 점수 공개를 개별적으로 요청하였지만 천안시는 되려 ‘심사위원들의 프라이버시’를 이유로 공개하지 않았다.

공공운수노조 충남문화예술단지부장 김규현 동지는 이렇게 말한다. 2년 전만 해도 점수가 월등히 높았던 단원이 하루 아침에 점수가 떨어질 리가 없지 않은가. 결국 단체장의 갑질횡포로 인하여 조합원들의 해고 사태가 발생하였고, 천안시는 이를 수수방관하고 있다는 것이다.

충남문화예술단지부는 지난 2일 천안시청 앞에서 100여명의 조합원들이 모인 가운데 천안시를 규탄하는 결의

대회를 진행했다. 매일 중식 피켓시위와 매주 월요일 아침 출근 투쟁을 진행하면서 투쟁의 파고를 높일 예정이다.

문화예술 공공성 쟁취! 해고자 원직 복직! 천안시장 규탄한다!

희망연대노조 LG유플러스지부 서산지회

LG유플러스지부 서산지회는 지난해 8월 노조를 설립하고 12월1일부로 총파업에 돌입, 현재까지 굳건하게 파업대오를 지켜내고 있다. 비록 10명의 동지들이지만 상경투쟁팀과 지역투쟁팀으로 조를 짜서 짜임새있게 투쟁

을 전개하고 있다. 지역투쟁을 담당하고 있는 동지들은 서산을 중심으로 한 선전전을 진행하고 있으며, 조만간 충남본부와 함께 투쟁방안을 구체화할 예정이다.

민주노총 충남지역본부 6기 임원 선거 후보

구분	이름	소속	생년월일	경력
본부장 후보	유희중	금속노조 세정지회	72.11.01	민주노총 충남본부 5기 사무처장
수석부본부장 후보	안성환	충남지역노조 한성실업지부	59.12.21	충남지역노조 5기 위원장
사무처장 후보	정환윤	금속노조 현대차아산공장사내하청지회	71.10.10	민주노총 충남본부 조직부장

- ▶ 선거일 : 2월 10일(화) ~ 12일(목), 18:00까지
- ▶ 개표일 : 2월 12일
- ▶ 당선공고 : 2월 12일 개표 즉시
- ▶ 당선자 확정 공고 : 2월 17일(화) 18:00 이의제기기간 5일 경과 후
- ※ 선거 종료 후 투표함은 충남지역본부로 옮겨주시기 바랍니다(충남 아산시 온궁로 4, 3층)

민주노총 8기 부위원장 선거 후보

부위원장 후보-여성명부				
1	정혜경	금속노조	68.08.18	전 민주노총 6기 부위원장
2	김경자	보건의료노조	66.11.08	전 민주노총 7기 부위원장
부위원장 후보-일반명부				
1	주봉희	언론노조	53.09.10	전 민주노총 7기 부위원장
2	이상진	화학섬유연맹	69.12.25	전 민주노총 7기 부위원장
3	김옥동	건설산업연맹	65.09.27	전 건설기업노련 2대 위원장
4	김종인	공공운수노조	61.02.08	공공운수노조 수석부위원장
5	이경수	공공운수노조	60.08.10	전 민주노총 충남본부장 1기
회계감사 후보				
1	김경숙	공공운수노조	66.10.13	전 공공운수노조 전회련 김포지회장

- ▶ 선거일 : 2월 12일(목), 민주노총 정기 대의원대회
- ▶ 충남지역 후보자 간담회 : 2월 5일(목), 16:00, 충남지역본부 5층 회의실



주요 사업 일정

날짜	시간	장소	내 용
3일(화)	13:30	충남도의회	고교평준화 관련 충남도의회 방청 및 항의투쟁
4일(수)	07:40	유성기업	유성지회 출근 투쟁
	14:00	아산비정규지원센터	아산시위원회
6일(금)	14:40	현대자동차	현대자동차 공장 앞 비정규직 출근투쟁
10일(화)~12일(목)			민주노총 충남지역본부 임원 선거 투표기간
12일(목)	13:00	서울 88체육관	민주노총 정기 대의원대회

민주노총 총파업 웹진(호 2015. 1. 29 (목))

박근혜에 맞선 노동자살리기 총/파/업/
박근혜를 멈춰! 오늘하루 제쳐!

**박근혜 3년 한상균 3년
같이 끝내지 않는다!**
총파업에 우리의 미래 희망
운명을 다 걸자!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 (노동과 계) 인터뷰 중

**민주노총
4월 총파업 승리 위한
시동 걸다**
총연맹 사무총장 조직개편 부위원장단 선거
총파업기획단 구성

**현장은
총파업을 요구한다!**
각급 조직 · 현장들 총파업 결의

뉴스클리핑
[경향신문] 송실대 청소노동자, 용역업체
갑질 규탄

**내 반·기사
취업고용**

민주노총에서는 총파업 웹진과 LTE 뉴스를 발행합니다

```

    민주노총
    ↓
    충남본부 조직담당자
    ↓
    각 산별노조 조직담당자
    ↓
    단위사업장 조직담당자
    ↓
    단위사업장 확대간부
    ↓
    조합원
  
```

위와 같은 경로로 웹진이 조합원 모두에게까지 배포되고 읽힐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충남지역본부 소식지가 동지들결으로 배달됩니다

잠시 중단되었던 충남지역본부 소식지 '결'을 재발행합니다. 당분간은 격주간으로 발행할 예정이며 민주노총 총파업이 본격화되면 총파업 속보로 변경해서 주간으로 발행할 계획입니다.

충남본부 홈페이지에 PDF, 한글, 그림파일의 형식으로 게시할 예정이고, 간부동지들에게는 메일로도 발송합니다. 또 그림파일을 카카오톡이나 텔레그램을 이용해 각 산별 조직담당자 동지들에게 배포합니다. 각 산별, 단위사업장 간부동지들께서는 소식지를 전체 조합원의 손에까지 배포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소식지에 실었으면 하는 기사, 사진, 만평 등 기고하고 싶은 내용을 언제든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보내실 곳 : mjcn@hanmail.net>